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기획조정실장 이동기 선임연구위원
(063-280-7181)

보도시점 : 2016년 3월 21일(월) 12시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

제2회 도민공모 제안과제 시상

『현장 밀착형 사회복지 욕구-개입을 위한 질적연구 자료정리 사업』 등 4건 선정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의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 등을 위해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열린연구, 좋은 연구’ 과제 도민 공모결과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 등 모두 4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올해 2회째인 연구과제 도민공모 결과, 우수상에는 박송이 씨가 제안한 『현장 밀착형 사회복지 욕구-개입을 위한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자료 정리사업』과 이종근씨의 『아리울 세계 문학 테마파크 조성』이 영예를 안았다.
- 그리고 정기석씨와 신해정씨가 제안한 『농촌 유희시설의 지역주민 공유 ‘생활·문화·교육 마을공동체Cafe’ 기반,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 사업모델 개발』과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한 허브시스템, ‘전북관광 플랫폼센터’ 필요성 연구』가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 전북연구원은 박송이씨가 제안한 복지 관련 과제는 ‘그동안 통계분석에 의존함으로써 파악되지 못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탐색함으로써 도민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종근씨가 제안한 새만금 관련 과제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립 한국문화관 유치 등과 연계하기에 충분한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농촌 유희시설의 지역주민 공유 ‘생활·문화·교육 마을공동체 Cafe’ 기반,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 사업모델 개발』은 ‘유희시설에 대한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한 허브시스템, ‘전북관광 플랫폼센터’ 필요성 연구』는 제안자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관광플랫폼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전북연구원은 이번 ‘열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공모 제안과제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하여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 시상식 사진 자료는 기자님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